

찢기고 뒤틀리고... 그날의 참상 ‘생생’

세월호 선체 내부 첫 공개

녹슨 철근·전선 뒤엉켜 처참
4층 좌현구간서 유류품 발견
타기실서 조타장치 수거 분석
선조위 7월초부터 선체 수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500일 만에 세월호 선체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동안 세월호 선체 일부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세월호 선체 내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선체내부공개 미디어 데이’에 참가한 광주일보 취재진이 살펴본 세월호 내부 모습은 외부보다 더 처참했다.

선조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타워(계단)를 통해 진입한 D데크는 세월호 인양 이후 안에 적재된 차량 등을 꺼내 텅 빈 공간이었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4년 전 그날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선체 전장은 녹슨 철근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었고, 갑판 외관 쪽은 심하게 뒤틀려 압박한 분위기를 더했다.

D데크 양 옆 쪽에는 노란 철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노란 기둥은 선체 수색과 조사 과정 등에서 좌현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설치한 지지대로, 세월호 선체와 구분하기 위해 노란색을 선택했다는 게 선조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관실 입구에 난 문으로 들어가 성인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어두운 계단을 오르자 3층 객실이 있는 중앙로비가 시야에 들어왔다.

3층 중앙로비는 일반인 승객과 단원고 학생 대부분이 이용했던 공간으로, 안내 데스크와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이 모여



24일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내부공개 미디어 데이’에 참가한 기자들이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 3층 중앙로비를 살펴보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있던 장소다.

중앙로비를 지나 단원고 2학년 7반, 8반 등 남학생들이 단체로 묵었던 4층 좌현구간에 들어서자, 다른 구간보다 더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가 누우면서 천장이 내려앉은 4층 좌현 협착부분은 그동안 수색과정에서 단원고 학생의 교복 등 여러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다.

하지만, 직접 전까지 수색이 어려웠던 구간 중 한 곳으로, 이날도 단원고 학생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등이 끼어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선조위는 애초 이날 기관실도 진입하기

로 했으나, 안전상의 이유와 함께 아직 수습되지 않는 진흙 등이 있어 기관실 앞까지만 공개했다.

이날 선체내부 마지막 공개 장소인 D데크 타기실 앞에 선 이정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타기실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기계실로, 침몰 원인 등을 밝힐 수 있는 조타 장치를 타기실에서 수거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핀 안전기가 최고 25도까지 돌아가지만 현재는 51도까지 돌아가 있다”며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선체 내부 변형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조위는 6월 중순부터 3주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7월 초부터 선체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수색 장소는 4층 객실 좌현 협착 부위와 아직 진입하지 못한 기관구역이다. 수색이 끝난 뒤 선조위는 해수부에 마지막 추가 수색을 요구할 예정이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3가지 조사용역을 발주해 현재 5~6개를 제외한 결과를 받았다.

선조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7월 9~20일까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불법게임기 900여대 유통 19억원 챙겨

광주지검, 26명 적발

불법게임기를 전국으로 유통해 수십억원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불법 게임기 900여대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통 총괄업자 A(47)씨와 광주지역 유통 총책 B(51)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연타·예시 기능

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 등에 저장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불법게임기 900여 대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이 불법 게임기 유통·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게임장 업주는 개·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운영해 1일 최고 87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5일간 1억 6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얻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택시요금 33만원 떼먹은 범인 잡아달라”

광주서 인천공항까지 운행

택시기사, 사기 혐의로 고소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요금 3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택시기사 김모(33)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들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2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택시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했다.

순천시장 비방 대자보

경찰, 4명 검찰 송치

순천경찰은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과 함

택시는 3시간 40여분을 달려 327km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요금은 33만여원이 나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손님 목격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와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택시기사 김씨에게 알렸다. 김씨는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님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보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에 선원 안전교육시설 들어선다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

이달 공사 시작 2020년 완공

목포에 선원 안전교육시설인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이하 서해권 훈련장)이 건립된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선원 재교육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133억원을 들여 북항 배후부지 내 대지 1만8000㎡, 연면적 3575㎡에 서해권 훈련장을 건립한다. 이달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 목표며 교육행정동, 해양안전교육장, 훈련장 등을 갖춘다.

전국 연안여객선 60% 이상이 목포 등 서해에서 운항 중이고, 목포지역 어선만

1100여 척이지만 서해에는 교육시설이 없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원거리 교육에 따른 선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리한 선박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서해권 훈련장 목포 건립을 끌어냈다.

목포시 관계자는 “건립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 장비 사용 등을 연수원과 사전 협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며 “근거리 교육으로 인한 선원 경비 절감, 연간 1만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과 가족 방문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교규석기자 yousou@

큰일날 뻔...유치원 버스에 4살 여아 2시간 방치

운전자도 교사도 ‘아무도 몰라’

전북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군산에서 4살 여자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2시간 가까이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치원 버스 안에 A(4)양이 혼자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유치원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어린이들은 오전 9시 30분께 인근의 유치원에서 하차했지만 A양만 남겨졌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안전지도사가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운전자는 버스를 유치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는 1시간 50분 정도 차 안에 방치됐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운전자와 안전지도사가 어린이 등·하원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운전자와 안전지도사,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연합뉴스



○...운전미숙으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짓신고까지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24일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A(여·51)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골목길에서 B(55)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뒤 15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고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 조사 했더니, ‘내가 사람을 치었다’고 자백했다”며 “(A씨가)음주상태는 아니었으나,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